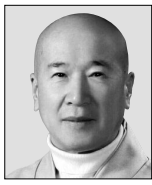


일 주 문



연말 이웃돕기 쌀 전달
무원 부산 삼광사 주지 스님은 12월 16일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에 3kg 쌀 500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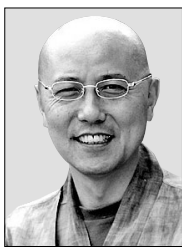


동국대 총동림동문회창립 취임
혜정 스님은 12월 15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승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단양경찰서 경승실장 위촉
덕중 천대중 총무원 복지국장 스님은 12월 9일 충북 단양경찰서 경승실장에 위촉됐다.

제1회 시민인권상 수상자에 혜철 스님



육천 태고종 대성사 혜철 스님이 1회 시민인권상 인권매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민인권센터는 12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1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총 6개 분야로 인권기초자리에 박용갑 중구경찰, 인권복지에 윤경열 행복마을 원장, 인권언론매체에 혜철 스님(불교공뉴스 대표), 인권실천에 임동표 한국진흥원 대표이사, 인권법조에 최기석 법률사무소 대표, 인권의료에 최경옥 대청병원 수간호사 등이 선정됐다.

이 중 인권언론매체에 선정된 혜철 스님은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한 인권활동 홍보와 육천지역 인권센터 창립에 앞장서왔다. 혜철 스님은 전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에 인권상담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취임)은 12월 3일 총무원인 부산 천광정사 대법당에서 종단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임시총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차기 총무원장에 최운스님(사진 왼쪽서 세번째)과 사정원장 해관 스님을 선출했다. 최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하는 승가, 발전하는 종단이라는 기치아래 전법종단으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봉직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사람 육성 교육기관으로 발전”

신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내정자



‘교육의 질’ 강화 제1공약
인재봉사 기금모연도 앞장

“실무형 인재, 불교정신에 입각한 참사람 인재를 육성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297차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선임된 이대원 교수는 이같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대원 총장 내정자의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이 총장 내정자는 “합리화와 내실화 경영 전략으로 4년 후 지방사립대 중 전국 3위로 도약하겠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학교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원동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 내정자는 임기 중 먼저 교육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 내정자는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정착시키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재직교원 역량강화 및 우수교원 총원, 국책연구소 유치로 매년 총 4000억원 규모의 연구비 수주,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 추진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유럽 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불교인문학, 관광 및 경영, 바이오메디컬헬스케어, 에너지안전 환경, 자동제어시스템 등 5개 분야를 교육 역량 강화 분야로 선정해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대학의 화두인 취업을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형 인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총장 당선자는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어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장려, 진로설계 관리, 취업 컨설팅 등 적극 활용, 교수 동문과 전문가의 멘토링제도 확립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종립학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참사람 인재교육과 인성교육센터 설립, 인재봉사 기금모금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현재 240여개 지역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다. 산학협력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기회를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 명문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릴때부터 어머니의 천수경 독경을 들으며 자랐다는 이 교수는 동국대에 입학하며 불교 교리에 관심을 느끼고 불교에 심취했다. 1980년 동국대 농업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독일 쾰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로 부임해 제11대 교수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발전협의회 이사, 식물생명공학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외형적인 지표보다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불교미술 정립 호국불교 알릴 것”

호국불교미술연맹 총재 진관 스님

“예로부터 불교는 호국의 정신을 담은 불교미술을 바탕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임금으로부터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道總攝)에 임명돼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한 서산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래 전부터 전승돼온 불교미술을 재정립해 호국불교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12월 9일 출범한 호국불교미술연맹 총재 진관 스님(사진)은 이에 앞서 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1층 카페 바리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맹 발대식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호국불교미술연맹은 불교미술의 발굴과 체계화, 승군활동의 학문적 정리 등을 통해 한국전통미술을 복원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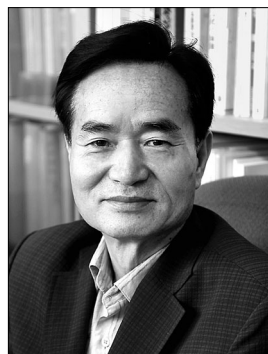
진관 스님은 “서산대사께서는 호국애민의 정신을 담은 미술을 통해 구국활동을 벌이셨다. 하지만 그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중요한 불교적 가치 중 하나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소림사와 같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미술을 ‘승무도’로 체계화해 국제적으로 보급할 생각”이라고 연맹의 창립 동기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맹은 내년 1월 중순경 예산군 덕산면에 ‘호국불교 미술문화원’을 개원하고, 불교미술과 관련된 사료를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승무도를 보급하고 있는 100여 개의 도장사범도 함께 참여한다. 윤호섭 기자

“종교문화, 융합의 시대로 발전해야”

정년퇴임하는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다원주의 시대에 미래 종교문화는 종교간 융합과 대화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12월 14일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65)의 정년퇴임식을 겸한 회향강연회에서의 마지막 강연 주제는 ‘종교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불교의 역할’로 진행됐다.



그동안 한국불교학계를 이끌어 온 김용표 교수(사진)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 동부 템플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동국대 교수로 30년 가까이 재직해 왔다. 이후 김용표 교수는 이웃종교와의 교류와 불교학의 세계화와 종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20대 한국불교학회장을 지내며 학제간 교류를 시작했으며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연구단장을 역임하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또 세계 각국의 중요 도서판과 학회에 제공되는 영문불교학술지 ‘세계불교 사상문화저널(IJBTC)’을 25권째 발간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기본 입장은 ‘다원주의를 향하여 열린 포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불교학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 교수는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재조명 작업 등에도 몰두했다. 현대 한국불교사상에 기여한 월정사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 선운사 박한영 스님, 고익진 교수 등이 연구대상이었다. “학문과 교육의 길에 은퇴란 적절치 않은 말 같습니다. 정년이란 그동안의 교육연구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학문과 삶의 과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종단聯 회장 성철 스님 취임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 한불련)는 12월 8일 인천 보명사 대법당에서 제3대 회장 성철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 각성 스님, 제2대 회장 무산 스님, 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윤기순 대표이사 등 협회 임원과 김상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구승중 총무원장 원당 스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무공 스님의 개식선언과 충남무형문화재 40호 보명 스님의 상축문이 진행됐다.

2대 회장 무산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내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회원님들의 격려로 지금까지 왔다. 향후 역량을 키우는 한불련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3대 회장 성철 스님은 “초대, 2대 전임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중책을 맡아 한불련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상확립, 합리적 조직구조 운영, 발전적 행정시스템 구축 등 3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성철 스님은 11월 10일 한불련 회장단의 추천으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합회 운영에 공로가 인정된 회원들에 대한 훈장표창 및 훈장증서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2015 불교기자상 및 불기협회의 밤

본지 신성민·노덕현 기자 대상 수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 이하 불기협)는 12월 7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관에서 ‘2015 불교기자상 시상식 및 한국불교기자협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신성민·노덕현 기자는 연중기획 ‘평복 70년, 불교 70년’으로 대상인 선원민 기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획·해설부문은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김현태 기자가 만난 시니어불자’, 취재·보도부문은 BTN불교TV 이리나·장수정 기자의 ‘2015 장애인의 날(6회 연재)’이 수상했다. 또한 불교계 기자로 20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게 수여하는 근속상은 밀교신문 이재우 편집국장과 불교플러스 박선영 취재부장이 받았다. 이외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나눔상은 BTN불교TV 이석호 기자가 수상했다.

포교위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은 격려사에서 “정문지필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글로 행복을 전해주는 기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위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종민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 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웅변대학 제1기생 모집

① 대학개설취지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 것”처럼 웅변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잡초처럼 참고 견디며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로써 오로지 진리를 불같은 “사자후”를 터트리는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야 한다. “세치의 혀는 칼보다 무섭고” 침묵보다 무거운 정치가의 말 한마디는 “역사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웅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후학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수하고자 합니다.

② 입학 및 수강안내

모집인원	자격	제출서류	강의시간 및 장소
웅변, 연설, 기타 (30명) 특별반 0명	비구, 비구니, 법사 기업인(대표), 공무원, 단체, 정치인, 지도자, 일반인(남, 여)	입학권서(1통) 사진 1장	매주 화요일 : 6시 30분~9시(2시간 30분) 매주 목요일 : 6시 30분~9시(2시간 30분) *장소 : 백용사 대 법당 *시간조절 가능(입학식때 의견조율)
① 교육내용	웅변(3분스피치) 원고작성법을 배우면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음		
•법문, 연설, 축사, 강연(기타), 임기웅변(3분 스피치) •총장님(해봉) 직접강의 •주옥같은 수많은 원고(대회, 강연, 출사, 기타) 내용을 예를 들어 시범 원고작성법 강의(중점적으로 강의)	•태도 : 연단(표정과 자세) 실기 •성량 : 발성법 → 고저장단, 호소력, 호흡조절(단문원고 연습, 시범, 실기반복) •원고작성법 → 서론, 본론, 결론(3단논법)에 의한 청중을 감동, 설득 시킬 수 있는 내용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중점적으로 강의) •연단경험 : 매일 연단에 서게 함(단문원고) •강명 : 연사마다 장 단점		
④ 본대학 이수시 본대학 졸업장 수여	⑤ 입학금, 등록금 없음(보시하겠습니다) ※ 교재비 6개월간 10만원		
⑥ 입학식	2016년 1월 5일(화요일) 오후 5시	⑦ 원서교부기간	2015년 12월 14일부터 - 2016년 1월 3일까지(선착순)